

#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발행일 2016년 4월 10일 초판인쇄  
펴낸이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매골로 189번지  
031-582-7273  
info@ieden.kr  
<http://www.ieden.kr>

ISBN 979-11-86212-04-2

비매품

## 목차

1. 예수님의 약속
2.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예수님
3. 계시록의 내용
4.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한 조건
5. 추수하는 자
6. 예언된 인물들
7. 강 좌우의 두 사람
8.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수 샘물
9. 생명수 샘물의 유업

#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쓰인 걸로 알려져 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60여 년이 지난 이후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계시록을 쓰게 하셨는가?

## 1.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 약속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알기를 원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 알려주시고,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마24:30-34)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당대에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며 순교를 당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 바울도 60년대 중반에 순교를 당하였다. 그 후로도 30여 년이 지났고, 95년경에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밧모 섬에 갇혀 있었다. 사도 요한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지상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될 상황이었다.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마저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리고자 하셨다.

## 2.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시대에 다시 오지 못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셨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마24:36), 더 직접적인 증거는 계시록에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공로로 하나님께 상을 받으셨다. 그 상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말한다(골3:1).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른 손에 가지고 계신 책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계5:1-3)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극비로 감추어두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아 쥐실 때 하나님 앞에 있는 4생물, 즉 4천사장들과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그 책을 보실 자격이 있다고 찬양을 하였다.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5:7-10)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장차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왕이 될 존재들이다.

그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책을 보신 일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 책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그 책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일을 이루어달라는 것이었다.

그 책을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지상에 계실 때 알고 있었던 것과 같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다시 약속을 주셔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그렇지 않는다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 3. 계시록의 내용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을 계시록 첫 문장에서 밝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1:1)

그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비밀의 책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책의 내용은 예수님조차도 그 책을 받으시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책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4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그런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이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담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책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럼 계시록은 읽기만 하면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책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것이다. 계시록은 너무 난해해서 어느 누구도 모순 없이 그 전체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밝혀 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책은 너무나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순서도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계시록은 그렇게 어렵게 쓰인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마귀를 잡는 것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깊이 감추시며 알려주신 것이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렇다. 계시록의 많은 내용이 이미 구약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그 예언들도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목표는 마귀를 잡는 것이다. 그것은 계시록의 마지막에 마귀를 잡아 불못에 던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20:10)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의 결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결정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 4.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한 조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마귀와 싸울 하늘 군병의 수를 채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제단 아래에 가 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계6:9)

그곳에 가 있는 자들은 두 부류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구약시대 성도들이다. 둘째는 “저희의 가진 증거”, 곧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신약시대 성도들이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계19:10).

이 순교자들은 장차 마귀가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제단” 아래에 가 있었다. 이들이 예수님께,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원한을 갚아주시느냐고 여쭙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은 순교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6:11)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아시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순교자의 수에 관한 것이다. 그 수가 차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없다. 그 수는 몇인가? 바로 14만 4천이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14:1)

여기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배출하신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배출하신 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이 14만 4천을 구원 받는 자들의 상징적인 수로 여긴다. 창세 이후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면 말이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수는 구원 받을 자의 수가 아니다. 이들은 하늘 군병의 수이며, 이들이 마귀를 멸망시킨 후에 마귀에게 끌려간 모든 영들을 음부에서 나오게 하여 심판을 하게 되며(계20:4),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 받을 자들이

6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결정된다. 이때 구원 받는 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14만 4천의 수가 다 찼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 오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으므로, 그 수가 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현재 이 세상에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 24:30)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지상에 임할 재앙 때문이다(계8장, 9장 참조).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늘 군병의 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알 수 있다. 그 수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마귀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수는 어떻게 채워지며, 그 일은 누가 하는가?

## 5. 추수하는 자

계시록에는 하늘 군병을 추수하는 자가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 예언되어 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14:14-16)

그는 손에 추수하는 낫을 가졌고,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일을 한다. 이 곡식은 바로 하늘 군병을 의미한다.

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예언이 다니엘서에도 있다. 다니엘이 본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었고, 그는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7:13-14)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인가? 기독교인들은 “인자”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를 여호와로 해석한다. 그러나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예수님이다. 그것은 22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단7:22)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여호와를 말하고, 그의 성도는 바로 14만 4천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심판 권세를 주어서 원한을 갚아주시는 자, 곧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신원하였다고 번역되었으나, 원어에서는 심판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다.) 심판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다(요5:22).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심판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순교자들, 즉 성도들에게 심판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다(계20:4).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8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17:4-5)

미가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미5:2)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마2:4-6 참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근본이 상고이며 태초라고 알려주셨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예수님이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므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에게 모든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으니, 그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그가 낮을 들고 추수, 곧 하늘 군병을 배출하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인가?

## 6. 예언된 인물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을 할 존재들을 예언해두셨다. 성경에 예언된 인물은 네 분밖에 없다. 그 중 두 분은 2천 년 전에 등장한 세레 요한과 예수님이시다. 세레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길 예비자 역할을 하였다.

나머지 두 분은 두 감람나무다. 그 중 첫 감람나무는 둘째 감람나무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 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슌4:12-14)

감람나무는 이미 2,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 예언되었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감람나무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만일 예

수님께서 감람나무에 대해 아셨다면 그 세대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람나무가 예수님 시대로부터 2천 년 후에 등장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가인 시대로부터 6천 년에 걸쳐 하늘 군병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하늘 군병을 배출하여 14만 4천의 수를 완성시키는 것이 마지막 때에 등장한 감람나무의 사명이다.

첫 감람나무는 1951년에 기름부음 받은 박 장로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1980년에 하나님을 배반했다. 둘째 감람나무는 어렸을 때에 박 장로와 함께 기름부음 받은 이영수로, 그는 1973년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에덴성회를 시작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신 후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알게 되셨고, 계시록에 그들을 당신의 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알려주셨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 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11:3-5)

감람나무는 1,260일을 예언하는 인물이다. 1,260일은 그들이 예언하는 기간이 아니고, 예언하는 내용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실제 1,260일에 대해 알게 되고 예언을 하는 자는 두 사람 중 하나, 곧 두 번째 감람나무다. 두 촛대는 두 감람나무를 따르는 교인들을 말한다(계1:20 참고). 이것은 촛대가 불을 밝히듯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을 나타낸다.

## 7. 강 좌우의 두 사람

다니엘서에는 예수님과 두 감람나무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언이 나와 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

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 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단12:5-7)

다니엘은 강물 위에 있는 자, 곧 “세마포 옷을 입은 자”와 강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두 사람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다니엘이 본 내용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질문하였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끝난다고 하였다.

그 때는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로, 이것은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1,260일과 같고, 또 짐승이 권세를 갖는 42달과 같다(계11:3-4, 13:5). 이것은 앞으로 천 년 후에 있을 일이다. 군병의 수가 완성되면 마귀들을 무저갱에 가두었다가 천 년이 지나면 풀어주어 전멸시키게 된다(계20:1-3). 42달의 사건은 천 년 후에 시작되며, 이 동안에 감람나무와 성도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권세가 깨어진다(계11:7, 13:7). 이 사건이 지나면 비로소 마귀 세력을 완전히 멸할 준비가 이루어진다.

두 사람 중 하나가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그가 1,260일에 대해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시록의 두 감람나무 중에서 1,260일에 대해 예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질문을 한 자이며(계11:3-4), 그는 둘째 감람나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비밀을 감람나무에게 밝힐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예수님밖에 없다. 따라서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책을 받으시기 전에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지만, 다니엘은 당연히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천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였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삽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단12:8-9)

선지자라고 해서 자신이 보는 이상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그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내용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그 마지막 때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나는 때이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 천사가 알려준 바는 다음과 같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단12:4)**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다.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교통수단의 발달을 의미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과학의 발달을 의미한다.

## **8.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수 샘물**

예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사53:5). 구약시대에는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어서(히10:1) 선지자들도, 순교자들도 죽은 후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마귀 세상인 음부로 끌려갔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소멸할 생명수 샘을 만드셨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슥13:1)**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씻는 샘이 열린다는 그 날은 언제인가? 그 답은 그 구절 앞에 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슥 12:10)**

12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여기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의 “그”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에 죄를 씻는 샘이 열린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졌다. 그 샘물, 곧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씻기지 않는다. 죄가 씻기지 않으면 누구라도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과일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영생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6:53-54)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지 이미 2천 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믿는 사람들 중에 생수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인가? 그렇다. 그래서 2천 년 동안 생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생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7:38)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 같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실제 우리 몸에 감각적인 느낌을 갖도록 주신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감람나무를 통하여 주어졌으므로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2천 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믿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천국 백성의 배출이 아니고,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늘 군병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동

안 하늘 군병의 자격을 갖춘 순교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서 씻어주셨다(계20:5).

## 9. 생명수 샘물의 유업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은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21:5-7)

여호와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유업으로 받은 이긴자를 통해서 나눠주도록 하시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긴자가 바로 감람나무다. 이것은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에도 나와 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11:6)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 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속4:12)

감람나무가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한다는 것은 물에 예수님의 피를 담기게 하여 전해준다는 것으로, 스가랴서에는 이것이 감람나무가 전해주는 “금기름”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것이 이긴자에게 유업으로 주신 생수다.

이긴자는 바로 감람나무를 뜻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예정하신 것을 아시고, 감람나무로 쓰이기 위해 이기는 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셨으며, 그에게 일곱 가지 언약을 예언하셨다(계2:7, 11, 17, 26-28, 3:5, 12, 21). 그 언약 중에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수를 의미한다.

14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2:17)

다니엘서에서 세마포 입은 자가 예수님 입은 앞에서 설명했다. 그는 강물 위에 서 있는데, 그 강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생명수 강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계22:1-2, 단12:6).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두 증인인 두 감람나무로(단 12:5, 계11:3-4)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역사하는 두 사람의 이긴자다(계21:6-7).

그래서 이러한 생수의 역사는 두 번 있을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여호와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고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속14:7-8)

따라서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하는 이긴자도 둘이다. 감람나무가 둘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이긴자를 찾으신 것이다. 이긴자는 감람나무의 사명을 받게 되어 있다. 첫 감람나무는 생수를 전해 주며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고, 그들 중에서 하늘 군병의 자격자를 만들어 추수하는 것은 둘째 감람나무의 역할이다.

여호와께서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목마른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다.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진 것은 2천 년 전이지만, 이긴자, 곧 첫 감람나무가 등장한 것은 1,950년대다. 그때까지 생명수 샘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런 이유로 그 동안 생수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준다는 예언을 전한 것은 A.D. 95년경이다.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 한 지도 60여 년이 지났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지도 30여 년이 지났다. 따라서 12사도도 사도 바울도 생명수 샘물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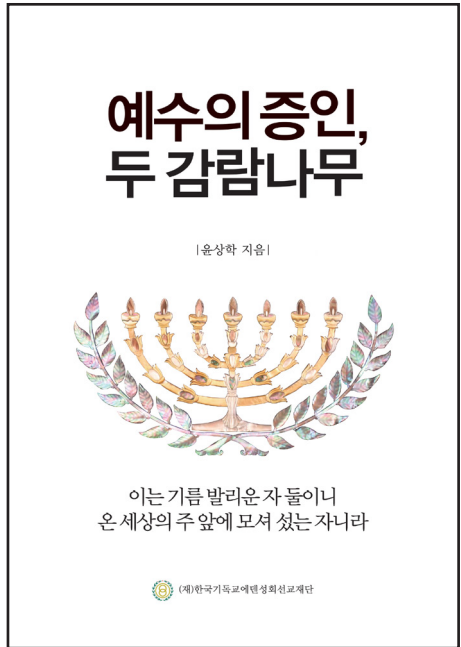
기독교의 핵심은 12사도와 사도 바울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들은

생명수 샘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죽었다. 따라서 현재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 샘물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며,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을 기다리셨다. 이것을 가지고 역사할 감람나무가 등장하기까지 마귀가 이에 대해 알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실이 그 동안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전에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요4:10, 7:38).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동안 생수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다. 하지만 죄를 씻으려면 생명수 샘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감람나무의 사명을 정하신 것은 4천 년 전, 곧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감람나무의 사명을 위해서 2천 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등장한 것은 우리 시대다. 이런 방대한 규모의 역사를 몇 십 년을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성경에 기록을 남기셨고, 오늘날 그 일을 맡은 당사자가 하나님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도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작전이므로, 마귀가 알아서는 안 되는 극비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일을 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 일을 맡은 감람나무가 나타나 일을 하는 시대로, 그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존재, 곧 영원한 권세를 받을 자이다(계2:26, 단7:14).



〈천국은 있는가〉는 이영수 총회장이 40여 년 간 설교한 자료들 중에서 42편을 골라 하나님의 섭리를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다. 이 설교들에서 이영수 총회장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6천 년에 걸쳐 마귀를 멸망시킬 군대를 만들고 계시며, 이제 그 마무리 시점에 이르렀다. 그 일을 마무리지을 존재가 바로 감람나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책을 받으셨고, 그 책을 보시고 감람나무가 필요함을 알게 되어 계시록에서 두 감람나무를 당신의 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책을 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감람나무는 예수의 증인이다(계11:3-4). 이들은 6천 년에 걸쳐서 하늘 군병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짓는 자들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책을 받으신 후에야 알게 되셨다. 〈예수의 증인,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결과로 여호와께서 만드신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하늘 군병을 배출하는 사명을 받은 두 감람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장차 하늘 군병들이 마귀의 세력을 멸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과 그 심판의 결과로 천국에 들어가서 백성이 될 자들과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될 자들이 나누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ISBN 979-11-86212-04-2